언어변화의 유형과 원인 및 독일어의 역사적인 발전

이점출(중앙대)

1. 서론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형태범주 및 문장구조 변화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 독일어의 역사적인 발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데 있다.

언어변화에는 종합적인 언어구조에서 분석적인 언어구조로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언어구조에서 종합적인 언어구조로의 변화도 있는데, 독일어의 변화는 주로 전자에 속한다. 언어와 인간생활은 상이한 차원에서 관찰해서는 안 되고 상호 조건화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들 사이의 생기 있는 상호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변화를 언어에 가해지는 외적인 요구의 결과로 볼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형성력도 인정해야 한다. 언어와 인간생활은 언제나 내적인 관계 속에서 관찰되어야 하며 언어의 변화는 생활환경의 변화에도 따른다.

이 논문의 2장과 3장에서는 독일어의 형태범주 및 문장구조 변화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4장에서는 독일어의 역사적인 발전에 대해 Hugo Moser(1972)의 독일어 시대구분을 토대로 하여 독일어의 발전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자 한다[1].

---

1) 이 논문을 심사하여 좋은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께 감사 드린다. 이 논문의 주제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쓸 수 있는 테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러한 제목으로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독일어 형태범주와 통사범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내용을 기술하고, 독일어의 역사적인 발전(주로 음운변화)을 약술하여 독일어 발전사를 개관해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형태범주의 변화

술어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형태에서 서법, 시제 및 태 사이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서법의 경우에서는 특히 접속법 형태의 사용이 강하게 후퇴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시제와 태에서는 통사적인 문장 성분 구조(예컨대 현재완료, 미래; werden-수동과 sein-수동)로부터 새로운 형태가 생성된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생생과정이 부분적으로는 독일어가 최초로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되었다. 새로운 형태에서는 소위 문법의 분석적인 형태범주나 혹은 풀어쓰기(Paraphrase)의 형태범주가 문제된다. "풀어쓰기(=바꿔 쓰기(Umschreibung) 형태 또는 분석적인 형태)는 한 단위를 형성하는 두 개의 자율적인 요소의 결합이다. 풀어쓰기의 의미는 더 이상 개별 요소들의 의미에서 유도될 수 없다. 풀어쓰기의 표현형태가 완결된 체계로 통합되는 경우 그것은 문법화된다" (Ebert 1978:57). 다음에서는 서법, 시제, 수동, 부정어 및 동사의 부정형에 대한 표현에서 그 변천 경향이 고찰된다(Vgl: Tarvainen 1986:299f.).

1) 전통적인 서법(Modus) 중에서 접속법 I 은 그 효력을 가장 많이 상실하여 일상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예컨대 간접화법과 다른 부문장)에서는 직설법이 접속법 I 의 과제를 떠맡았다. 이에 반해 몇몇 부문장에서는 직설법이 접속법 II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접속법 II가 - 특히 후기의 분석적인 würde-형태로 - 살아남았다. 특히 서법내용 '추측'과 '가설적인 양보'를 위해서 새로운 분석적인 "화법동사 서법"이 생겨났다(Er *dürfte* zu Hause sein; Was auch geschehen *mag/möge*,...). 본래 문장서법(문장유형)을 대표하는 명령법은 잘 유지되었다.

2) 시제(Tempus)의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미 문자가 전래되기 이전에 분석적인 형태로서 술어보충어 구성으로부터 현재완료와 과거완료가 생겨났다. 현재완료가 상부독일어의 방언에서는 완전히, 문어에서도 많은 경우에서 옛날의 과거를 대체하였다. 과거완료에서는 상부독일어에서 haben과 sein의 과거가 소멸됨으로써 이중의 과거완료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사용되어서 상부독일어와 그밖에 일상어에서도 새로운 현재완

료 형태가 되었다(Ich habe gesehen gehabt. ① 'Ich hatte gesehen', ② 'Ich habe gesehen'). 분석적인 미래형 중에서 중고지독일어 이후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된 werden-미래가 이전의 화법동사 미래형(sollen, wollen, müssen)을 밀어내었지만, 아주 일반화되지는 못했으며 대부분 현재로 대체된다. 그에 반해 werden-미래는 새로운 서법기능을 얻게되었다(추측: Er *wird* jetzt zu Hause sein.).

3) 부분적으로 이미 고고지독일어의 전래 이전에 술어보충어 구성에서 생겨난 werden-수동은 잘 유지되었지만, 오늘날에는 werden-수동과 더불어 형태상 능동적인 경쟁형태가 나타난다(예컨대 Das Schauspiel *kam* gestern *zur Aufführung.*). 소위 sein-수동(=Zustandspassiv: Das Geschäft *ist* heute *geschlossen.*)은 실제로 원래의 술어보충어 구성의 형태를 나타내며, 이 형태로부터 오늘날의 수동형(werden-수동 역시)이 발전하였다.

4) 부정어(Negation)에서 본래의 문장부정어(Satznegation) ni는 이미 중고지독일어에서 원래 부정을 강화하는 부정첨가어 nicht에 의해 밀려났다(중간형태로서 고고지독일어에서는 이중부정어 ni - niowiht가, 중고지독일어에서는 이중부정어 ne - niht가 나타난다).

5) 동사의 부정형 중에서 부정사와 과거분사는 오늘날 문장성분 내적인 결합가에 따라 정동사에 종속하는 술어의 일부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고유한 문장구성요소로도 기능을 한다. 그에 반해 현재분사는 오늘날 문장구성요소의 기능만을 갖는다.

a) zu 없는 부정사(=단순 부정사)가 중고지독일어 이후로 소위 화법동사 서법(예: Er *dürfte* heute kommen.)과 접속법 würde+부정사구성 및 고고지독일어 이후로는 미래(신고지독일어 werden-미래)에서 술어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werden-미래에서는 zu 없는 부정사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며, 술어적인 현재분사에서 기원한다(wird *bindende* > *bindenne* > *binden*). zu 없는 부정사는 문장성분으로서 대부분 zu-부정사로 대체되지만, 아직도 제한적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보충어로서 나타난다(예: Er will *kommen*; Er geht *einkaufen*). 형용사와 명사의 규정어로서의 단순 부정사는 원래 전치사 zu가 있는 부정사의 3격이었던(zu sagen < zu sagenne) zu-부정사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났다(예: Er ist fähig, das zu tun; seine

Fähigkeit, das zu tun). zu-부정사는 처음부터 주어와 목적어로서 기능하지만, 오늘날에는 술어의 일부로서도 기능한다(예: Er scheint das zu wissen). 신고지독일어에서 새로운 부정사의 문장성분 형태로서 um zu/(an)statt zu/ohne zu+부정사구조가 생겨났다.

b) werden-수동 및 분석적인 과거시제인 현재완료와 과거완료에서 과거분사는 술어의 일부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소위 상태수동(Das Geschäft ist *geschlossen.*)에서는 과거분사가 형용사적 술어보충어로서도 해석될 수 있는데, werden-수동과 과거시제에서도 과거분사는 원래부터 술어보충어였다. Der Versuch scheint *gelungen.*과 Wir glauben uns *verborgen.*과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거분사가 명백히 술어보충어이다. kommen의 방법첨가어로서 과거분사의 현대적인 사용은 중고지독일어에서 유래한다(Er kommt *gelaufen.*). 그러나 문장구성요소로서 과거분사는 주로 부가어로서 사용된다: die *zerstörte* Stadt; eine *verblühte* Rose.

c) 현재분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주로 형용사적 부가어로서 사용된다: eine *drückende* Hitze. 그에 반해 술어보충어로서의 현재분사의 사용은 신고지독일어에서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다만 임의의 목적격 술어보충어로서만 나타날 수 있다: Mr fand sie *schlafend/weinend.* (Das Kind ist *reizend.*와 같은 경우에서의 현재분사는 이미 순수 형용사가 되었다.) 현재분사는 일종의 방법첨가어로서 아직도 여전히 사용되며, 원래 술어동사의 내용과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를 표현한다: Der Junge kam *weinend* nach Hause.

3. 문장구조 변화의 유형과 원인

정동사로 구성되는 술어나 혹은 정동사를 갖는 동사복합체로 구성되는 술어가 이미 고고지독일어 텍스트에서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문장의 주동사(Hauptverb)는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도 이미 그 보충어(목적어)에 대한 특정한 집단의 형태를 결정했으며, 다른 집단은 형태상 주동사에 따르지 않았다(부사보충어). 술어의 형태는 부분적으로 술어보충어의 형태도 역시 결정했던 주어에 의해서 결정되었다(=일치 Kongruenz).

비록 전체의 문장성분 목적어가 이미 고고지독일어에서 존재했지만, 오늘날 일상적인 전치사 목적어의 등장은 아직도 적었던 반면에, 오늘날 드문 2격 목적어의 등장은 많았다. 주어와 술어 사이의 일치가 문장구조를 형성했지만, 그 규칙이 이전에는 현대 독일어에서와 결코 동일한 규칙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통사론 변천의 특정한 유형이 구별될 수 있으며, 이 변화의 배후에는 비록 객관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들지만 특정한 이유와 동인을 가정할 수 있다.

3.1 통사적인 변화의 유형

독일어 문장성분의 형태상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독일어 전체 언어유형을 변화시켰다. 새로운 형태는 거의 전치사나 혹은 조동사를 갖는 여러 단어들로 구성된 어휘결합이었다. 이러한 동반어는 이전에 널리 사용된 격어미의 통사적 기능을 떠맡았다. 따라서 이전에 주로 종합적인 문장구조가 더욱 분석적인 문장구조로 변화하였다(Vgl: Tarvainen 1986:306ff.).

1) 15세기까지 많은 기능으로 사용된 2격이 현대 독일어 방언에서 고정된 몇 가지 잔재를 제외하고는 소멸되었으며, 특히 부가적인 소유의 2격을 제외하고는 문어에서도 다소간 격식어의 잔존형태를 나타낸다. Behaghel에 따르면 이러한 변천에 대한 원인은 특히 고고지독일어 말기에 완전한 굴절어미의 약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쇠퇴에 대한 원인은 이미 중고지독일어에서 아주 많은 2격이 1격 및 4격과 동음이었다는 사실과, 특히 중고지독일어 시대가 지남에 따라 형용사와 대명사의 남성과 중성 2격이 1격 및 4격과 일치했다는 사실에 있다(비교: ich bin *es* satt; viel Gut*es*)" (Behaghel 1916:320). 목적어에서 4격이 늘어나고 2격이 퇴조한 이유는 아마도 부분적인 내용(Er aß *des Brotes* : Er aß *das Brot*)처럼 2격 목적어의 명확한 특수의미가 사라지고, 4격 목적어에 대한 2격 목적어의 특성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Dal 1966:21). 그밖에 2격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4격이 아니라 전치사구로 대체되었다. 여기서는 고고지독일어 말기 이후로 순수 격을 전치사 구조로 대체하려는 일

반적인 경향, 즉 분석적인 언어유형에 대한 경향이 나타난다.

2) 명사의 2격 형태처럼 동사의 접속법 I 의 형태가 사라지고 있다. 긴 텍스트에서 주문장을 통해 간접화법이 계속되는 소위 보고화법에서는 현대어에서 종속적인 화법의 접속법이 아직도 필수적이다. 그에 반해서 간접화법의 부문장에서는 접속법 I 이 다만 직설법과 접속법 II에 대한 하나의 수의적인 대안이 되었으며(Ich sagte, dass er zu spät komme/käme/kommt), 일상어에서는 거의 직설법만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부문장 안에 있는 접속법 I 의 사용에서도 적용된다. 접속법이 극소수의 경우에서만 의무적이다. 이것은 아마도 특정한 부문장 유형의 표지로서 접속법 I 의 필수성에 대한 어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접속법 II는 접속법 I 보다 훨씬 잘 유지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접속법 II의 주요 서법내용(='비현실성')이 독일어에서는 다른 수단, 예컨대 순수 어휘적인 수단을 통해서 표현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3) 통사적인 재해석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 그 하나의 경우에서는 통사적인 문장성분 구조가 하나의 통일적인 문법적 형태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독일어에서는 수동, 현재완료/과거완료, 미래에 대한 오늘날의 분석적인 형태가 형성되었다. 발음상의 변천도 역시 변화에 관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의 경우에서 주동사의 부정사는 통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사 I 대신에 아마도 자음동화와 어미음 탈락(Apokope)으로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wird bindende > bindenne > binden). 다른 하나의 경우에서는 재해석된 구조가 그 통사적 특징을 잃지 않고, 통사적 특징이 변화할 뿐이다. 따라서 *dem Vater* sein Hut 안에 있는 소유의 3격은 동사에서 나타나는 임의 3격(이익의 3격)으로부터 부가어와 유사한 명사의 규정어가 되는 그러한 구조변화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um zu + 부정사의 첨가어구조에서 전치사 um은 원래 동사에 종속하는 전치사 보충어의 한 부분이었는지도 모른다([Er ging aus um Wasser] [zu holen] > [Er ging aus] [um Wasser zu holen]). 대부분의 접속사의 생성은 흥미로운 경우를 나타낸다. 즉 통사적인 문장성분에서 통사적인 형식어가 형성된다(Ich sehe das: er kommt > Ich sehe, daß er kommt).

4) 통사적 영역에서 특히 빈번한 일종의 유추는 구조혼합이나 혹은 혼성

어(Kontamination)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das gehört mein을 das gehört mir와 das ist mein의 혼합으로, mich freut deines Mutes(Klinger에서)를 ich freue mich deines Mutes와 mich freut dein Mut의 혼합으로, das lohnt sich der Mühe를 das lohnt sich와 lohnt der Mühe(Paul...)의 혼합으로 설명한다"(Ebert 1978:16).

5) 통사적 영역에서의 차용(Entlehnung)은 종종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다. 독일어 문장구조에서 학자들은 특히 라틴어의 흔적을 발견한다. 예컨대 주문장에서 부정사와 분사의 문미위치(Endstellung), 부문장에서 정동사의 문미위치, 관계대명사로서 대명사 welcher의 사용, 미래Ⅱ의 형성은 라틴어의 영향에서 기원한다. Polenz(1972:95)에 따르면 초기 신고지독일어에서는 "이를테면 라틴어 모범에 따라 비 독일어적인 분사구조와 부정사구조의 증가하는 사용처럼 순수한 라틴어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확실히 통사적인 문체요소가 존재한다. 예컨대 말하기 동사와 생각하기 동사 다음에 오는 AcI-구조(초기 신고지독일어: Ich sagte ihn kommen)가 비 독일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AcI-구조는 고고지독일어의 번역문학과 16세기와 17세기의 인문주의자들의 독일어에서는 나타나지만, 중고지독일어의 문학작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부정사를 취하는 라틴어 4격의 모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독일어에서는 또한 lassen, sehen, hören(er sah ihn kommen 등)에서 4격과 부정사 보충어를 취하는 구조의 재해석 가능성과, 그리고 말하기 동사로 재해석을 확대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Ebert(1978:17). 가정된 라틴어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경우는 Ebert에 의해 언급된 부정사에서의 4격처럼 독일어 자체의 체계안에 있는 가능성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외국어의 영향하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었으며 또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라틴어 이외에 다른 언어, 특히 프랑스어와 영어도 독일어 문장구조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

3.2 통사적인 변화의 원인

통사적인 변화유형의 몇 가지 원인, 예컨대 어미모음의 약화와 종합적인

문장구조에서 분석적인 문장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경향이 언급되었다. 위에서 다루어진 변화요인들 중에서 실제적인 하나의 원인은 언어변화의 외부적 원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독일어 통사론에 대한 외국어의 영향이다. "우리가 외부적 원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언어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서 출발하여, 특히 사회의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특수성, 즉 이주와 이동, 언어공동체의 결합과 분열, 의사소통 형태의 변화, 진보하는 문화와 기술 등과 관계가 있는 아주 다양한 모든 자극이다"(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1975:185). 그러나 언어변화가 또한 민족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정신적·육체적 본질로서의 인간의 언어기구에 대한 단순한 작동만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 소위 내적인 원인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외적인 원인과는 달리 내적인 원인은 역사적으로 제한된 시간상의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즉 내적인 원인은 확실히 범 연대기적이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언어에서, 즉 오늘날에는 사라진 언어들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미래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1975:196). 독일어 문장구조에서의 변이형 및 변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적인 동인들 중 몇 가지가 다음에서 논의된다. 1) 언어경제성의 원칙, 2) 감정적 표현성에 대한 경향, 3) 명료성에 대한 추구, 4) 미학적이며 사회적으로 제약된 몇몇 이유가 논의된다(Vgl: Tarvainen 1986: 310ff.).

1) 여기서 언어경제성(sprachliche Ökonomie)의 원칙이란 특히 "언어수단의 절약에 대한 경향"(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1975:204)을 말한다. 절약에 대한 여러 가지 하위집단이 구별될 수 있는데, 독일어 문장구조의 변천도 역시 그러한 절약의 모든 하위집단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a) 여러 언어에서 문법관계는 종종 과잉특성화 되어 있거나 혹은 과잉기술화 되어 있지만, 언어는 보통 동일한 문법현상에 대한 중복된 표현수단을 줄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과잉특성화의 과제에 대한 이러한 노력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독일어에서 접속사 없는 문장에서보다는 오히려 접속사 있는 문장에서 접속법이 사라지는 이유를 확실히 설명해 준다(Er sagte, dass er morgen kommt : Er sagte, er komme morgen). 즉 접속사

와 접속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서 하나의 통사내용을 이중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잉기술의 과제에 대한 다른 예는 독일어 문장부정어의 역사이다. 즉 원래 부정어 ni, ne를 단지 강조하는 nicht가 원래의 부정어로 간주된 이후에, 불필요하게 된 옛날의 부정어 ni, ne는 사라졌다.

b) 통사적인 단축(Kürzung)은 언어수단의 절약에 대한 상당히 빈번한 경우를 형성한다. Ich habe Müllers(=Müllers Familie) besucht.)와 같은 문장의 Müllers처럼 외관상의 복수에서는 원래 생략(Ellipse)이 존재한다. 문장구성요소를 절약하는 문장성분의 재구성은 통사적인 단축의 다른 경우이다: Der Eimer(=Das Wasser im Eimer) läuft über; den Hasen(=dem Hasen die Haut) abziehen.

c) 언어에는 보통 발음을 쉽게 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예컨대 이러한 경향의 구체적인 현상은 독일어에서 몇 가지 문법적 형태의 형성도 설명해주는 자음동화(Assimilation)와 어미음 탈락(Apokope)이다. 그래서 기대될 수 있는 원래의 현재분사 대신에 오늘날 werden-미래에서의 부정사는 자음동화뿐만 아니라 어미음 탈락으로도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Er wird bindende > Er wird bindenne(-nd-에서 -nn-으로의 자음동화) > Er wird binden(종자음의 단순화와 어미음 탈락). 불변화사 zu를 제외하고는 단순 부정사와 형태상 동일한 오늘날의 소위 zu-부정사는 원래 격어미 -e를 갖는 부정사의 3격이었으나(고고지독일어: za/zi bindenne), 어미 -e가 탈락함으로써 비로소 순수 부정사와 동일하게 되었다.

2) 감정적인 표현성에 대한 경향에서는 언어사용자가 언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이외에 감정과 정서의 표현으로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표현이 강한 언어수단을 찾는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어순에서 유표적 초점으로서 강조되는 구성성분을 문두에 두려는 경향이다(=표현위치 Ausdrucksstellung). 독일어에서는 후장의 위치도 그러한 감정적인 표현의 강조기능을 가질 수 있다(Ich habe gekündigt *aus diesem und keinem anderen Grunde.*). 보고하는 과거 대신에 역사적인 현재(historisches Präsens)의 사용도 역시 감정적인 표현성에 이용된다.

3) 감정적인 표현성에 대한 경향 이외에 언어에서는 다른 표현에 대한

경향, 즉 가능한 한 명료한 표현수단의 사용에 대한 경향도 존재한다. "여러 언어사에서 나온 사실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여러 형태들 중에서 가장 명료한 표현형태가 선호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준다"(Allgemeine Sprachwissenschaft1975:209).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생생하게 할 경우에 정상적인 서술시제인 과거보다는 훨씬 명료한 시제형으로 간주되는 역사적인 현재가 "2차적"으로는 명료성(Anschaulichkeit)의 추구에 대한 하나의 통사적인 예를 나타낸다. 또한 분석적인 문법형태는 종합적인 문법형태보다 더 큰 명료성을 전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어에서 특징적인 것은 2격 목적어 대신에 전치사 목적어의 빠른 보급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오늘날의 문장부정어 nicht의 형성이다. 이 문장부정어 nicht는 처음에 원래의 부정어 ni, ne의 강조수단으로 기능하였으나, 점차로 그것을 밀어내고 원래의 부정어가 되었다. 단순과거와 비교해서 현재완료의 더 큰 명료성이 독일어에서 현재완료를 선호하는 데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4) 미학적이며 사회적으로 제약된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통사적인 수단은 변화한다.

a) 언어는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어에서도 미학적인 목적에 사용된다. 특히 리듬적인 경향에서 표현되는 표현미에 대한 이러한 추구는 통사론의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어순(Wortstellung)에서 명백하다. 즉 보다 짧은 구성성분은 문장에 상승하는 리듬을 주기 위해서 종종 보다 긴 구성성분보다 선행한다. 이러한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Behaghel의 "증가하는 성분의 법칙"(Gesetz der wachsenden Glieder)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b) 특정한 텍스트에서는 1인칭 단수가 종종 회피된다. 그래서 학술논문의 저자가 자기 자신을 말할 경우에는 종종 필자라는 말을 쓴다(예컨대 Ich bin der Meinung. 대신에 Der Verfasser ist der Meinung.). 이러한 주어에 대한 결정은 일종의 겸손과 공손함을 나타내고 불손함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일어에서 소위 공경해야 하는 사람이나 혹은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서 2인칭 복수를 피하고 3인칭 복수를 사용한다. 이때 접속법 I 도 역시 공손한 명령법(거리를 두는 명령법)으로서 사용되었으며, 이전의 명령법(2인칭 복수)을 이러한 기능에서 몰아내었다(이전의 Kommt (Ihr)! 대신에 Kommen Sie!). 그밖에 공손함은 요구문의

통사적 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ollen Sie mal hierher kommen? Du könntest mir ein Päckchen Zigaretten holen. Du wirst mich doch nicht alleine lassen! 접속법 II의 사용도 역시 '신중한 유보'의 서법으로서 언급될 수 있다: So *wäre* es besser. *Dürfte* ich Sie um einen Gefallen bitten? 모든 이러한 경우는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통사구조에 대한 예이다.

언어변화의 원인에 대해 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결코 완전하지는 않다. 언급된 내적인 원인들 중의 많은 것이 내적인 원인에 대한 "임의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적인 원인이 독일어 문장구조의 변화 중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변화는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도 따른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4. 독일어의 역사적인 변화

Hugo Moser(1972)의 독일어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 시대구분을 토대로 하여 독일어의 역사적인 변천사를 요약·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기원 후 8세기 중엽까지: 독일어 선사 시대
   1.1. 기원전 2000년: 게르만어 이전 시대
   1.2. 기원전 1000년: 초기 게르만어 시대
   1.3. 기원후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게르만어 제 방언 시대
   1.4. 5세기부터 8세기 중엽까지: 독일어 이전 시대
2. 8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초까지: 고대 독일어(Altdeutsch)
   2.1. 750-1170년: 초기 독일어(=고대 고지독일어(Althochdeutsch) 및 고대 저지독일어(Altniederdeutsch))
   2.2. 1170년부터 13세기 중엽까지: 전성기 중세 독일어(중세 고지독일어(Mittelhochdeutsch) 및 중세 저지독일어(Mittelniederdeutsch))
   2.3. 13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초까지: 후기 중세 독일어(=후기 중세 고지독일어(Spätmittelhochdeutsch) 및 후기 중세 저지독일어(Spätmittelniederdeutsch)

3. 16세기 초기부터 현대까지: 근대 독일어(Neudeutsch)
   3.1.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초기 근대 독일어(Älteres Neudeutsch)
   3.2. 19세기: 후기 근대 독일어(Jüngeres Neudeutsch)
   3.3. 20세기 이후: 현대 독일어(Deutsch der Gegenwart)

4.1 독일어 선사 시대

독일어는 인도 유럽어 또는 인도 게르만어 군에 속한다. 인도 유럽어(=인구어)는 다시 켄툼어(=햄족어)와 자템어(=셈족어)로 나뉜다. 켄툼어에는 그리스어, 이탈리아어(라틴어 등), 게르만어, 켈트어, 히타이트어 등이 있고, 자템어에는 슬라브어, 발틱어, 알바니아어, 아리아어(인도-이란어), 아르메니아어 등이 있다. 인구어 중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언어로는 기원전 2000년대부터 전해져 오는 산스크리트어(Sanscrit)와 히타이트어(Hethitisch)가 있다. 개별 언어가 형성되기 이전인 기원전 1000년경(=초기 게르만어 시대)에 게르만어만이 지니는 몇 가지 특성이 발전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게르만어가 다른 인구어와 명확히 구분된다.

원래 자유로웠던 강세가 단어의 의미를 지니는 어간음절로 이동함으로써 단어의 말음절, 특히 굴절음절의 약화가 일어났다. 또한 음성의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게르만어 또는 제1차 음운추이(germanische oder erste Lautverschiebung)가 그것이다. 제1차 음운추이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경에, 즉 게르만인들이 로마인들과 최초로 접촉한 시기에는 이미 종결되었다. 이 음운변화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으나 문법적 교체(grammatischer Wechsel)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운변화의 언어 내적인 인과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1차 음운추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Vgl. Moser 1972:8; von Polenz 1978:16). 즉 인구어의 무성 폐쇄음 p, t, k(ph, th, kh)가 게르만어에서는 무성 마찰음 f, th(Þ), h(ch)로 된다. 그러나 p, t k가 sp, st, sk와 결합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lat. pater → got. fadar 'Vater'

lat. tres → got. þreis[þrīs] 'drei'
lat. cornu → got. haúrn 'Horn'

인구어의 bh, dh, gh는 게르만어의 유성 마찰음 ƀ, ď, ǧ로 되었다가 후에 다시 b, d, g로 되었다.

lat. ferō → got. baíran[beran] 'tragen'
griech. thýrā → got. daúr[dor] 'Tor'
lat. hostis → got. gasts 'Gast'

끝으로 인구어의 무성 폐쇄음 b, d, g가 p, t, k로 추이되었다.

lat. scabere 'kratzen' → got. gaskapjan 'schaffen'
lat. edere → got. itan 'essen'
lat. jugum → got. juk 'Joch'

p, t, k 바로 앞에 강세가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f, th(þ), h(ch)로 추이되었지만, 강세가 이들 뒤에 있거나 앞에 있어도 직전에 없을 경우에는 유성 마찰음 ƀ, ď, ǧ로 추이되어서, 인구어 bh, dh, gh에서 생겨난 ƀ, ď, ǧ와 합쳐졌다. 또한 무성음 s도 유성음 z로 변했으며 z가 서게르만어에서 소멸되지 않으면 r로 변했다. 이와 같이 강세의 위치에 따라서 무성 마찰음과 유성 마찰음 사이의 교체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문법적 교체(grammatischer Wechsel) 혹은 베르너의 법칙(Verners Gesetz)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독일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griech. patḗr/altind. pitár → got. fadar[fáďar] 'Vater'
griech. phrắtōr → got. brōþar 'Bruder'

f-b : dürfen - darben / Hefe - heben
(비교: Hanóver[f] - Hanoveráner[v])

d-t : leiden - litt / schneiden - schnitt
h-g : ziehen - Zug/gezogen
s-r : Verlust - verlieren / gewesen - war
(비교: póssible[s] - posséss[z])

다른 음성적인 변화도 역시 게르만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다. 어간모음변화(Brechung=Vokalsenkung(모음하강): 고트어에서 r, h 앞의 모음 i, u가 e, o로 하강하는 현상)라고 일컫는 위치 변이음들이 생겨났는데 이 결합적 음성교체는 아직도 독일어 변화 쌍들에서 잔재로 남아있다(von Polenz 1978:19).

nehmen/nimmst	(ahd. neman/nimist)
ober-/über	(ahd. obar/ubir)
fliegen/fleugst(고형)	(ahd. fliogan/fliugist)

게르만어의 단어굴절은 점차 종합적인 구조에서 분석적인 구조로 변화하였다. 탈격과 처소격이 거의 사라지고 도구격의 사용이 아주 제한되었으며 그 대신에 전치사구조가 나타났다. 게르만어에 대한 자료들은 네가우 지방의 투구문자를 제외하고는 시저, 타키투스 및 다른 로마의 작가들에서 전해오는 몇몇 게르만어 단어들뿐이다.

기원후 1세기경에 게르만 종족은 북게르만족, 동게르만족, 북해 게르만족(후에 프리스족, 앙글로·작센족), 베저-라인강 게르만족(후에 프랑크족, 헷센족), 엘베강 게르만족(후에 튀링엔족, 알레만족, 바이에른족)의 다섯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후자의 세 게르만족이 사용한 방언을 서게르만어라고 칭하고 북게르만어, 동게르만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게르만어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서게르만어는 역사문법과 어원학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 낸 하나의 추상화일 뿐이다.

게르만어 방언들 중에서는 일부만이 문서로 전해진다. Wulfila (?-382/383)가 동게르만어인 고트어로 번역한 성서 이외에 다른 자료들은 아주 빈약하다. 4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몇몇 초기 북부 루넨문자, 몇몇 서게르만어

루넨 문자 및 라틴어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소수의 단어들뿐이다.

독일어는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연관하여 세 집단의 게르만어 방언에서 성장하였다: 북해 게르만어(잉베온어), 엘베강 게르만어(헤르미논어) 및 베저·라인강 게르만어(이스트베온어). 결정적인 변화는 남쪽에서(알레만어와 바이에른어에서) 시작된 소위 고지독일어 또는 제2차 음운추이(hoch-deutsche oder zweite Lautverschiebung)이다. 여기서는 제1차 음운추이의 결과로 생긴 게르만어의 폐쇄음이 다시 변화한다.

제2차 음운추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Vgl. Moser 1972:13; von Polenz 1978:29). 즉 p, t, k가 고지독일어 영역에서 중간음, 모음들 사이, 모음 다음의 말음에서는 ff, zz, hh(ch)로 변화하지만, 두음, 자음 뒤, 중자음에서는 pf, z(tz), kch로 변화한다. 고대 상부 독일어에서는 d가 t로 변화하고, 알레만어와 바이에른어에서는 b, g도 p, k로 변화하였다.

got. greipan[grīpan] 'greifen', itan 'essen', juk 'Joch' →
ahd. grīf(f)an, ëzzan, joh(h)

got. pund 'Pfund', twai 'zwei', kaisar[cāser] 'Kaiser' →
ahd. pfunt, zwei, cheisar[kcheisar]

got. daúr[dor], daúhtar → ahd. tor 'Tor', tohter 'Tochter'
got. giban 'geben' → ostfränk. gëban, altbair. këpan 'geben'
got. brinnan → ahd. prinnan 'brennen'

제2차 음운추이는 5세기에 시작하여 7세기에는 랑고바르덴어, 알레만어, 동프랑크어의 지명에서 나타나며, 7/8세기에는 라인프랑크어와 중부프랑크어에서도 나타난다. 제1차 음운추이와 마찬가지로 제2차 음운추이의 원인과 전파에 대해서도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제2차 음운추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차 약화되어 갔으며("파동설 Wellentheorie"), 이 음운추이가 완전하게 나타난 것은 상부 독일어(Oberdeutsch)(알레만어, 바이에른어, 랑고바르덴어) 뿐이고, 중부 독일어(Mitteldeutsch)에서는 일부 방언들에서 나

타나며, 저지 독일어(Niederdeutsch)와 고대 작센어는 이 음운추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음운추이선(Lautverschiebungslinie)(von Polenz 1972:31)은 아헨의 이남에서 시작하여 넓은 반원으로 쾰른을 포괄하여 뒤셀도르프 바로 남쪽 지점에 있는 벤라트에서 라인강과 교차되고, 여기서부터 처음에는 동남으로, 그 다음 로트하르 산악지대에서부터는 동북으로 나아가 폴란드어 경계선까지 뻗어 있는 선이다(=벤라트선, Benrather Linie). 제1차 음운추이를 통해서 인구어에서 게르만어가 분리되었으며, 서게르만어에서 고지독일어(Hochdeutsch)로 변천하게 된 계기는 제2차 음운추이를 통해서이다.

4.2 고대 독일어(Altdeutsch)

'deutsch'라는 단어가 8세기 말 이후로(786년에 처음으로) 라틴어의 형태로 나타났다가, 2세기 이후에는 독일어의 형태로 나타났다(mittellat. theodiscus/theodisce, ahd. diutisc). 이 단어가 처음에는 민중어(ahd. theota, diot 'Volk'), 특히 게르만어 일반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프랑크 제국 내에서의 게르만어를 표현하였다: ahd. diutisc, mhd. diutsch, tiu(t)sch 'deutsch'. theodiscus가 처음에는 언어, 다음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vulgaris(민중의)라는 의미를 지녔으며 처음에는 라틴어에 대한 민중어(Volkssprache)라는 의미였다. teutonicus는 처음부터 deutsch라는 의미로 언어에서 사용되었으며 Teutoni는 민족을 뜻하였다. theodiscus라는 말은 이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취급된 teutonicus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계 언어를 사용하는 프랑크 민족에 대하여 라틴화 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deutsch라는 축소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Vgl. Moser 1965:98; von Polenz 1978:36).

8세기에 몇 가지 음운변화가 있었는데, 후속 음절 i와 j의 영향을 받아 a-변모음이 최초로 나타났으며 게르만어 ē, ō가 고고지독일어 ia(ie), uo로 변하였다(Moser 1972:17).

gast 'Gast' → gesti 'Gäste'
got. hēr, broþar → ahd. hiar 'hier', bruoder 'Bruder'

이 변화는 8/9세기에 고대 프랑스어와 동시에 일어났다. 분석적인 수동형성, sein이나 haben에 의한 과거시제 형성, 명사 동반어로서 지시대명사로부터 정관사로의 발전 및 부정대명사 man/on의 발전은 두 언어에서 공통적이다. 10세기 이후로 프랑크어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어미모음이 e로 변하는 모음약화 현상(Vokalabschwächung)이 나타났다(예: namo 'Name' > name).

초기 독일어(750-1170: 고대 고지독일어와 고대 저지독일어) 전반기의 문어는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종교적이며 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어의 내적인 발전은 특히 기독교 사상과 고대 사상을 통해 규정된다. 새로운 정신적이며 영적인 내용을 표현하려는 과제로 인해 추상명사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Notker der Deutsche(955-1022)의 작품에서는 종교적인 어휘와 더불어 철학적인 어휘가 나타났다.

포교과정에서 특히 라틴어가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라틴어 차용어(Lehnwort)와 수많은 문장구성들(부정사를 취하는 4격, 3격 형태의 절대적인 탈격 및 분사구조)이 독일어로 침투했으며, 운문에서는 두운(Stabreim) 대신에 각운(Endreim)이 사용되었다. 차용어는 대부분 종교적·교회적인 것(예: Münster, Kreuz, Zelle)이며 특히 라틴어의 모범에 따른 차용형성이 많다.

침투해 오는 로만어에 대해 9세기에 서부의 언어경계가 확고하게 형성된 것은 특히 카알 대제(Karl der Große)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프랑크 왕국을 토대로 800년에 독일 신성로마제국을 건설하였으며 형성과정에 있는 독일어를 지속적으로 장려하였다. 그는 학술과 교육의 진흥에도 힘을 기울여 각종 학교를 세우고 세계적인 학자를 모았으며, 라틴어의 교육을 장려하였을 뿐 아니라 독일어 발달에도 유의하고 고대전설과 영웅가요를 수집하여 민족문화의 발달과 보존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Notker의 죽음과 더불어 독일문학과 독일어는 이후 4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라틴어만이 문학작품의 언어로 남는다. 초기 독일어 후반기는 전성기 중세 독일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강세 없는 말음절의 약화가 계속되고, i-변모음이 a음에 한정되지 않고

o, u로 확대된다. 독일어가 라틴어의 모범에서 벗어났으며 영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의 종교문학에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4.3 중세 독일어(Mitteldeutsch)

전성기 중세 독일어(1170-13세기 중엽까지)의 음성형태의 특징은 어간강세와 동반어(관사와 인칭대명사)의 사용으로 인한 말음절의 약화이다(ahd. gëba → mhd. gëbe 'Gabe'; ahd. lisit → mhd. liset 'liest'). 그 결과로서 어미변화가 단순화되었다. 그리고 i-변모음(i-Umlaut)도 계속 확장되었다(a>e/ä, o>ö, u>ü, ā>æ, ō>œ, ū>iu(ǖ), ou>öu, uo>üe. 예: geste 'Gäste', nähte 'Nächte', swære 'Schwere')(Moser 1972:18). 이리하여 고대 고지독일어의 강세모음 체계는 16개 음운으로 구성되었으나 중세 고지독일어의 체계는 24개의 음운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유성 폐쇄음 b, d, g가 말음에서 무성 폐쇄음 p, t, k로 변화했다. 이러한 말음강화(Auslautverhärtung)는 표기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tages - tac, lībes - līp, mundes - munt).

전성기 중세 독일어의 특징은 초 지역적인 문학어인 소위 '고전적인' 중고지독일어(Mittelhochdeutsch)의 발생이다. 이 언어는 대략 1190년 이후로 궁중에서 발전되었으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된 최초의 독일어이다. 문학장르와 개별 작가들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광범위한 공통점을 보이는 문체는 예술적인 특수어(Sondersprache)의 문체이다. 이 특수어는 시민사회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우선 궁정사회에 한정되었다. 이 언어를 형태면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필사본이 작품보다 대체로 100여 년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Heinrich von Veldeke, Hartmann von Aue, Gottfried von Straßburg, Wolfram von Eschenbach (이상 궁정 서사시), Walter von der Vogelweide(서정시)를 중심으로 역사상 최초의 독일문학의 황금시대가 열렸다. 독일어가 이제 처음으로 독일문학과 마찬가지로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

후기 중세독일어(13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초까지: 후기 중세 고지독일어와 후기 중세 저지독일어) 시대에는 표준 독일어(deutsche Hochsprache)의

주요 사용자가 이제 귀족이 아니라 '시민계급'인 도시귀족들이다. 이 표준어는 지역적인 문어 및 문학 관용어의 형태로, 초 지역적인 문어, 전문어 및 직업어의 형태로 나타났다. 수공업의 다양화와 동업조합의 번성은 직업어(Berufssprache), 특히 상인과 광부들의 언어를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여타의 서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12세기 이후로 준비되었던 새로운 서체, 즉 굴곡된 '고딕체'(gotische Schrift)인 독일체(Fraktur)가 관철되었다. 이 서체가 독일에서는 20세기까지 사용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후기 중세 이후로 다시 라틴체(Antiqua)로 대체되었다.

처음에는 라틴어 서적의 번역에서 독일어로 쓰여진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13세기 중엽 이후로 신비주의자(Mystiker)들이 라틴어 이외에 독일어도 사용한 점이다. 이들은 추상명사의 사용으로 독일어 어휘를 풍부하게 했으며, 정신적·영적인 것, 특히 종교적인 체험을 궁정독일어를 넘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독일어의 능력을 고양시켰다. 스콜라 철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독일철학의 전문용어에 대한 기초를 세웠다(Vgl. Moser 1972:30ff.).

특히 중요한 것은 독일어가 14세기 이후로 급속히 확장된 교역어(Geschäftssprache)가 되었다는 점이다. 교역과 관청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초 지역적인 문어들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중세 네덜란드 문학어와 함께 나타났는데, 이 문학어가 또한 교역어와 문서어로서도 사용되었다. 14세기 후반 이후로 처음에는 한자동맹의 교역어로서 중세 저지독일어 문어가 발전하였는데, 이 문어가 또한 광범위한 시어와 산문문학의 언어로서도 사용되었다.

14/15세기에는 튀링엔어, 프랑크어, 바이에른어에서 영향을 받은 동·중부독일 통용어(ostmitteldeutsche Verkehrssprache)가 대두되었다. 14세기 초기부터 튀링엔 출신의 Meister Eckhart와 같은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동·중부독일어(Ostmitteldeutsch)를 사용했으며, 튀링엔 지방의 성서 번역자들과 14세기 중엽 이후로는 프로이센 교단의 성서 번역자들도 동·중부독일어를 사용하였다.

14세기 이후로 독일 문어에서는 중요한 서체의 특성이 나타난다. 문장, 연, 시행의 서두와(부분적으로는 이미 중세 초기에) 고유명사에서(이미 13

세기에) 뿐만 아니라, 명사와 형용사의 강조에서도 대문자가 사용되었다.

15세기 후반기에 비로소 막시밀리안의 관청어로부터 남부의 초지역적인 문어인 공통독일어(Allgemeines Deutsch)가 생겨났다. 15세기에는 수많은 민중본(Volksbuch)이 생겨났다. 그 당시 인문주의 학자들의 독일어는 어휘, 조어, 문장연결에서 과도하게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다. 학문어로서의 라틴어의 지위는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확고해진다. 15세기 말경에 인문주의 학자들에 의해 최초의 독일어 사전들이 나왔다.

4.4 근대 독일어(Neudeutsch)

16세기의 초기 신고지독일어(Frühneuhochdeutsch) 시대에는 특히 인쇄술의 보급과 관련하여 통일된 문어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다. 16세기 초에는 제국의 관청어로서, 주도적인 인쇄도시 아욱스부르크의 언어로서, 그리고 대부분의 성서번역의 언어로서 상부독일 문어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였다. Martin Luther의 성서번역(1522년 이후에 인쇄된)을 통해서 동·중부독일어가 부각되었다. 그의 독일어는 마이슨 관청어(meißnische Kanzleisprache)에 의거하며 동·중부독일어 균형어(Ausgleichssprache)에서 유래한다. 3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독일어가 루터의 저술을 통해서 두 번째로 유럽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Vgl. Moser 1972:40ff.).

루터의 언어는 동·중부독일과 서·중부독일에서 빨리 보급되었다. 종교개혁과 한자동맹의 붕괴로 인해 동·중부독일어(Ostmitteldeutsch)가 저지독일로 침투하였다.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동·중부독일어가 문서어로서 사용되었다. Hans Sachs, Jörg Wickram, Sebastian Franck와 같은 신교도들의 언어는 상부독일어(Oberdeutsch)에 가까웠다. 이들 언어형태는 상호간에 영향을 끼쳤다. 즉 상부독일어가 동·중부독일어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반대현상도 있었다.

루터에게서 언어란 단지 복음서를 위해서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국어를 중세의 '성스러운'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와 동등한 반열에 두었다. 루터가 근대 독일문어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동·중부독일어의 음과 굴절을 토대로 독일문어의 기초를 세웠다. 그는 많

은 새로운 단어들도 창조하였다. 독일어가 다시금 종교영역으로부터 깊고 내적인 풍요함과 변혁을 겪게 되었다. 이제 독일어가 신교의 예배언어가 되었으며 구교의 예배에서도 높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17세기 바로크(Barock) 시대에 유럽에서는 민족감정이 강하게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언어영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중부유럽에서는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을 통해 그 지위가 강화된 민족어(Nationalsprache)가 인문주의를 통해 초 민족적인 통일어로 확정된 라틴어에 대해 그 영향력을 증대했다. 정치적인 분열로 인해 독일문어는 그 통일적인 구조에서 매우 지체되었으며 외국어의 차용, 즉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 외에 특히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차용이 많았다. 독일어를 순화하고 통일하려고 노력한 집단은 '언어학회'(Sprachgesellschaft: 최초의 것은 1617년에 창설된 '결실의 회' Fruchtbringende Gesellschaft)였다(Vgl. Moser 1972:45ff.).

동·중부독일 문어와 상부독일 문어 사이의 경쟁은 계속되었다. 동·중부독일어는 루터의 독일어와 동일시될 수 있다. 즉 동·중부독일어는 독일의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7세기에 비텐베르크 대신에 프랑크푸르트가 주도적인 인쇄도시로 되었다는 사실은 중부의 언어적인 영향력이 강화되고, 동·중부독일어에 대한 서·중부독일어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Martin Opitz와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바로크 시대의 교양인과 작가들의 언어가 생겨났는데, 이 언어는 화려함, 지나친 비유, 인위적인 합성으로 인해 특수어(Sondersprache)를 형성하였다. 품사를 고려하지 않고 대문자를 점점 많이 사용하는 경향은 바로크 시대의 과장과 자기 과시에 대한 풍조를 대변한다.

17세기 중반에 독일에서는 유럽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어가 교양인의 언어로 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어의 영향도 강화되었다. 문학작품과 역사기술의 분야에서는 독일어가 라틴어를 밀어내었다. 같은 시기에 Leibniz가 학문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모국어가 적당할 뿐만 아니라 가장 유리하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그는 본질적으로 16세기의 견해를 극복했다.

바로크 시대의 작가와 문법가들이 뿌린 씨앗은 다음 세기에 가서야 비로소 싹이 트게 된다. 동·중부독일 문어와 상부독일 문어 사이의 싸움에서

동·중부독일어가 지방색이 강하고 관청어의 영향을 받은 상부독일어보다는 훨씬 통일적이었다. 동·중부독일어는 학문서적(특히 문법서)과 문학작품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언어의 무게중심은 서서히 동·중부독일어 쪽으로 기울었다.

18세기 초에 정서법과 발음을 규정하려는 언어학회의 노력이 표준 독일어를 점차적으로 통일하는 데 기여하였다. 대학에서의 강의는 점차 독일어로 이루어졌다. 18세기말에는 박사논문을 제외하고 학문어로서의 라틴어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이때 일련의 문어사전들과 방언사전들이 출간되었다.

동·중부독일어의 위치는 Gottsched의 영향으로 특히 강화되었다. 그의 원대한 목표는 독일 상류층의 언어로서 프랑스어를 몰아내고 독일어를 외국어로부터 정화하며, 마이슨어의 토대 위에서 (드레스덴) 궁전의 모범에 따라 방언이 없는 통일된 독일 문어와 구어를 창조해내는 것이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루터의 독일어가 아니라 오핏츠의 독일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의 주저인 '독일 언어예술'(Deutsche Sprachkunst)은 1748년에 동·중부 독일문어를 새로이 규정하고 당시까지 매우 논란이 많았던 명사의 대문자 쓰기를 관철시켰다(Vgl. Moser 1972:51ff.).

고트쉐트가 언어통일의 사상에 대한 비인궁정의 지지를 획득한 이후에 다른 남부독일의 구교도들도 동·중부독일어 보급에 진력했다. 강화되고 심화되는 국민감정과 더불어 특히 중요한 것은 위대한 작가들, 특히 Klopstock, Herder, Wieland, Schiller, Goethe 및 낭만주의자들이 동·중부독일어로 글을 썼다는 점이다.

18세기의 4/4분기에 특히 Adelung이 언어정화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는 1774-1786년까지 최초의 독일어 대사전을, 1788년에는 '독일어 정서법에 대한 완전한 지침'을 출간하였다. Campe는 언어정화자로서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적인 작가인 Wieland와 Klopstock가 모국어를 문학작품의 도구로 만들어 그 발판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작품에서는 독일어가 600년 전, 300년 전처럼 유럽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9세기 초기 이후로 강화되는 언어의식은 언어의 규범적인 문법규칙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언어의 계속적인 통일과 정화에 대한 노력, 역사문법의 의미에서 언어사에 대한 연구, (산스크리트어의 발견 이후로는) 언어비교에 대한 연구에서 표현된다. Jacob Grimm은 '독일어 문법'(Deutsche Grammatik, 1819-1837)을 쓰고, Campe는 '독어화 사전'(Verdeutschungswörterbuch, 1801)을 출판하였다. Grimm형제는 1961년에 와서야 완성된 '독일어 사전'(Deutsches Wörterbuch, 1854-1961)에서 수세기 동안의 어휘들을 총괄하였다(Vgl. Moser 1972:56ff).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는 문학작품이 표준어(Hochsprache)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마지막 시기이다. 오늘날의 문어구조는 본질적으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문학작품에서 기원한다. 음성과 형태 및 통사구조는 그 후로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휘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Goethe, Schiller, Hölderlin, Grillparzer가 희랍어의 모범에 따라 수많은 합성어를 만들어 내었다. 특히 기술의 시대를 맞이하여 독일어는 어휘면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했으며 또 영어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1870년 이후에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결과로서 정서법(Rechtschreibung)과 발음을 통일하려는 '언어학회' 설립 이후 면면이 이어온 노력들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독일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언어조정자의 역할을 하였다. 1901년에 독일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정서법이 통일적으로 확정되었다. 독일어 구어를 위해서 1898년에 독어학자 Theodor Siebs의 '독일어 표준발음'(Deutsche Bühnensprache)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주로 북독일의 어법을 따르고 있다.

비록 단어사용에서는 몇 가지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발음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세기 전환기 이후로 근대 독일어 표준어가 통일어(Einheitssprache)로 간주될 수 있다. 1890년 이후의 시기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강하게 형성된 언어정화운동의 강력한 물결을 통해서도 특징 지워진다. 이 운동은 인문주의자들, 언어학회 및 18세기말의 정화운동에 이은 네 번째 언어정화운동이다.

4.5 현대 독일어

독일어권이 양차 세계대전으로 두 번이나 축소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오더강과 나이세강을 경계로 폴랜드와 국경을 이루면서 독일의 영토가 줄어들었으며 약 1200만 명의 독일어 화자들이 독일로 이주하였다. 2차 대전 중에 수 백만 명의 유태인이 나찌에 의해 희생됨으로써 그 당시까지 1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었던 유태인 독일어(Jiddisch)가 그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다른 언어권에서도 양차 대전으로 인해 독일어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영어가 현재 급속도로 세계적인 언어로 발전함으로써 독일어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현재 독일어 화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에 이르고 있다.

독일어의 외부적인 모습을 의식적으로 규정하려는 몇 가지 노력이 있었다. 40년대에 독일체(Fraktur)가 라틴체(Antiqua)로 대체되었다. 국제적인 소문자 사용에 대한 과도기를 갖자는 권장은 강력한 저항을 받아 관철되지 않았다. '무대발음'(Bühnenaussprache)이 '표준발음'(Hochlautung)이 되었다.

형태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평준화하고 단순화하며 분석적인 구조에 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접속법 I(현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Er sagt(e), dass er *komme/käme/kommen würde*). 복수의 형성수단으로서 변모음이 계속 확장된다(Häfen, Abwässer). 남성과 중성의 강변화 3격과 2격의 강세 없는 -e가 사라지고 있다(in diesem Buch*e*, des Ring*es* 대신에 Buch, Rings). 2격의 -s 역시 고유명사는 물론 다른 명사에서도 사라지고 있다(die Dichtung des Barock(*s*), die Tage des Mai(*s*), das Ufer des Neckar(*s*)). 굴절형태소가 아니라 관사가 격을 표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 분석적인 형태에 대한 경향이 강화된다: 일상어의 2격에서(der Hut mein*es* Vater*s* 대신에 der Hut *von* meinem Vater, meinem Vater *sein* Hut), 표준어의 이름에서(der Hut Karl*s* 대신에 der Hut *von* Karl), 접속법 II에서(wenn er *käme* 대신에 *kommen würde*). sein, haben과 화법동사에서는 접속법 II의 종합적인 형태가 우세하다(wäre, hätte, könnte)(Vgl. Moser 1972:63ff.).

문장구조에서는 구어의 영향을 받아서 병렬문(Parataxe), 주문장을 사용

하는 경향과 es, dies, darauf 따위에 의한 후방지시의 경향 및 명사구조의 경향을 보여준다. 분리동사, 관계문 및 특히 전치사 보충어와 첨가어에서 문장괄호(Satzklammer)를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Ich *an*erkenne das/Ich *erkenne* das *an*. Der Mann ist soeben gekommen, *mit dem wir gestern gesprochen haben*.)

어휘의 분야에서는 일종의 명사화 구조에 대한 경향으로서 기능동사구(Funktionsverbgefüge)에 의한 표현이 선호된다(abstimmen, beweisen 대신에 Abstimmung durchführen, unter Beweis stellen). 이들은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세분화하며 추상화하려는 언어 경제적인 노력에서 생겨났다. -heit, -keit, -tum, -ung, -ismus로 형성된 새로운 추상명사가 과다하게 생겨났다. 세분화가 어휘발전의 주요한 특징이며 어휘가 엄청나게 확대된다(Rundfunk, Fernsehen, Atom, Kern, Rakete). 어휘들을 독일어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Boom, Jazz, Team, Hobby, Job, Trend, Fan, Makeup, clever 등).

현대 독일어의 본질적인 경향은 언어 경제적인 의미에서 평준화하려는 노력이다. 즉 방언(Mundart)이 일상어(Umgangssprache)에 근접하고, 일상어가 다시 표준어(Hochsprache)가 되는 경향이 있다. 표준어 내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대체로 북부지방의 형태가 유리하게 평준화된다(남부와 서부의 형태 Samstag, Mappe, Metzger 대신에 Sonnabend, (Akten)tasche, Fleischer). 어미변화의 영역에서도 남부지방의 Er *ist* gestanden/gegessen.이 아니라 북부지방의 Er *hat* gestanden/gegessen.이 관철되었다(Vgl. Moser 1972:66ff.).

1945년 이후 독일의 분단으로 동·서독의 공식적인 문어와 구어 텍스트의 어휘들은 많은 차이를 보였으나 1990년 통일 이후 점차 동화되고 있다. 그러나 형태론을 포함한 문장구조, 정서법과 표준발음의 규칙은 변화가 없었다.

1996년 7월 1일에 비인에서 독일어권 국가들과 그 밖의 이해 당사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독일어 맞춤법(Rechtschreibung)의 신 규정에 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1901년 Konrad Duden이 제기했던 독일어 정서법의 계속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실현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

했다. 그리고 독일어 정서법(Orthographie)을 보다 쉽게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오늘날의 요구들에 부응하는 관청의 규칙 총서를 마련하려는 다년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맞춤법 개정은 다음 여섯 영역으로 구성된다: 1) 음성과 철자의 배열(외래어 포함), 2)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3) 이음표를 사용한 철자법, 4) 대문자 표기와 소문자 표기, 5) 구두법, 6) 분철법(Vgl. 이점출 2000:67ff.).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맞춤법은 1901/1902년에 시작된 것이다. 이 맞춤법은 1901년에 베를린에서 열린 제2차 맞춤법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902년에는 규칙 총서로서 출판되었으며 독일에서는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새 규정은 1902년의 규정과 그 이후의 모든 보완 규정들을 대체한다. 새 규정은 맞춤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기본 규칙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체계성을 높였다.

비인 학술 회의라는 이름으로 1986, 1990년에 이어 1994년에 세 번째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독일어 정서법 개정에 대한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오스트리아 교육·예술부의 초청으로 1994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협의회에 벨기에,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남티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및 헝가리의 대표단들이 참여하였다. 회의 참가자들 모두 개정안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어 맞춤법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생겨났다.

비인 회의에서 지명된 국제적인 편집진들이 비인 회의의 결정 사항을 규칙 총서에 포함시키고 특히 어휘 목록을 완성한 후에, 관청의 규칙 총서를 위한 개정안이 1995년 4월 13일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주무 관청에 전달될 수 있었다. 1995년 11월 30일과 12월 1일의 총회에서 독일의 주정부 문교부 장관들도 마침내 독일어 맞춤법의 새 규정에 동의하였다. 이 결정은 12월 4일에 주정부 수상 회의에서 인가되었다. 그 후 1996년 7월 1일 비인에서 독일어권 국가들과 그 밖의 이해 당사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독일어 맞춤법의 신 규정에 대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규칙 총서는 규칙 외에도 광범위한 어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어휘 목록 속에는 약 12,000여 개의 예를 통해서 현대 독일어의 모든 어간 철자법이 포함되어 있다. 새 규정에 의해 생겨난 모든 철자법도 포함되어 있다.

1996/97년도 학기의 시작과 더불어 각 학교에서는 새 맞춤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 1998년 8월 1일부터 초급반 언어 수업에서는 새 맞춤법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고급반 수업에서는 신·구 맞춤법을 대조적으로 교수해야 한다. 어쨌든 2005년까지는 두 규칙이 병행하여 사용된다. 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의 과도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1998년 8월 1일부터는 모든 새로운 시험 및 연습 문장들은 새 맞춤법과 구두법으로 출판된다. 구 교재도 개정판을 낼 경우에는 새 맞춤법에 따라야 한다.

5. 결론

이 논문의 2장과 3장에서는 Kalevi Tarvainen(1986)(이점출 역(2001): 독일어 의존통사론)을 토대로 하여 독일어의 형태범주 및 문장구조 변화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4장에서는 주로 Hugo Moser(1972)(이광숙 역(1982): 독일어 발달사)를 토대로 하여 독일어의 역사적인 발전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독일어 형태범주의 변화에 대해서는 독일어의 서법, 시제, 수동, 부정어 및 동사의 부정형(부정사와 과거분사)에 대한 형태범주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독일어 문장구조에서의 변이형 및 변화에 대해서는 언어경제성의 원칙, 감정적 표현성에 대한 경향, 명료성에 대한 추구 및 미학적이며 사회적으로 제약된 몇몇 이유가 언급되었다. 언어변화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결코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원인들 중의 많은 것은 그 "임의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적인 원인이 독일어 문장구조의 변화들 중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변화는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도 따른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독일어의 역사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Hugo Moser(1969;1972)의 독일어 시대구분에 따라서 독일어 선사시대, 고대 독일어, 중세 독일어, 근대 독일어 및 현대 독일어로 구분하여 각 시대의 언어변화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주로 음운변화)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독일어 선사시대에서는 제1차 음운추이와 문법적 교체, 어간모음변화 및 제2차 음운추이가 논의되었다. 고대 독일어에서는 'deutsch'의 어원, a-변모음과 모음약화 현상이, 그리고 중세 독일어에서는 o/u-변모음과 말음강화 현상이 다루어졌다. 근대 독일어에서는 루터 이후로 고지독일어의 발전과정, 바로크 시대의 언어의 특징, 고트쉐트의 언어정화운동과 그림형제의 독일어 문법, 19세기말의 정서법과 발음의 통일에 대한 노력이 언급되었다. 현대 독일어에서는 20세기 이후 독일어의 형태구조와 문장구조의 특징과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어 맞춤법이 관철되기까지의 과정이 기술되었다.

참고문헌

이점출 (2000): 실용 독일어. 한국문화사. 서울.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2}1975). Band I. Existenzformen, Funktionen und Geschichte der Sprache. Von einem Autorenkollektiv unter der Leitung von B.A. Serébrennikow. Berlin.

Behaghel, Otto (^{4}1916):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Straßburg.

Dal, Ingerid (^{3}1966): Kurze deutsche Syntax. Auf historischer Grundlage. Tübingen.

Ebert, Robert Peter (1978): Historische Syntax des Deutschen. Stuttgart.

Lenerz, Jürgen (1984): Syntaktischer Wandel und Grammatiktheorie. Eine Untersuchung an Beispielen aus der Sprachgeschichte des Deutschen. Tübingen.

Moser, Hugo (1969): Deutsche Sprachgeschichte. Tübingen. (허발/이덕호 역(1981): 독일어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Moser, Hugo (1972): Annalen der deutschen Sprache. Stuttgart. (이광숙 역(1982): 독일어 발달사. 탐구당)

Polenz, Peter von (^{8}1978):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이덕호 역(1983): 독어사. 탐구당)

Schildt, Joachim (1991): Kurze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김원 역(1998): 독일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Tarvainen, Kalevi (1986): Deutsche Satzstruktur und ihre Entwicklung.

Dependenzgrammatik des Deutschen mit historischen Erläuterungen. Jyväskylä. (이점출 역(2001): 독일어 의존통사론. 한국문화사)

Zusammenfassung

Typen und Ursachen der Veränderungen der Sprache und die historischen Entwicklungen des Deutschen

Rhie, Jum-Chool(Chung-Ang Univ.)

Das Ziel dieses Aufsatzes liegt darin, Typen und Ursachen der Veränderungen bei den morphologischen Kategorien und den Satz- strukturen zu untersuchen, und die historischen Entwicklungen des Deutschen zusammenfassend darzustellen.

In der Sprachentwicklung müssen wir die lebendige Wechselbeziehung zwischen Sprache und Leben beachten. Sprache und Leben sind nicht als zwei verschiedene Größen zu betrachten, sondern nur in ihrem gegenseitigen Bedingtsein zu verstehen. Sprache und Leben sind immer in ihren inneren Zusammenhängen zu sehen, geänderten Lebens- umständen werden sprachliche Veränderungen folgen.

Bei den Veränderungstypen wurden einige Ursachen erwähnt, z. B. die Abschwächung der Endungsvokale und die Tendenz der Entwicklung vom synthetischen zum analytischen Satzbau. Eine wirkliche Ursache unter den Veränderungsfaktoren ist der Einfluss der fremden Sprachen auf die deutsche Syntax. Zu den äußeren Ursachen rechnen wir sämliche ungewöhnlich verschiedenartigen Impulse, die von der die Sprache umgebenden Umwelt ausgehen. Sprachliche Veränderungen können auch innere Ursachen haben. Als innere Ursachen wurden das Prinzip der sprachlichen Ökonomie, die Tendenz zur emotionalen Expressivität, das Streben nach Anschaulichkeit sowie einige ästhetisch und sozial bedingte Gründe besprochen.

In Bezug auf die historischen Entwicklungen des Deutschen wurden die Epochen der Sprachentwicklung in Anlehnung an Hogo Moser(1972) in 5 Epochen, d.h. Vor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Altdeutsche Zeit, Mittelalterliches Deutsch, Neudeutsche Zeit und Deutsch der Gegenwart untergliedert, und einige wichtige Entwicklungen des Deutschen in der jeweiligen Epoche zusammengefasst.